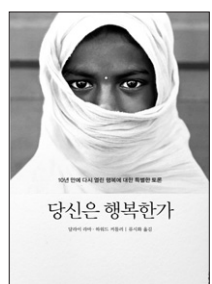


“삶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행복”

정신과 의사가 달라이라마에게 물은 행복론 나의 행복원하면 남부터 행복하게 해줘야



당신은 행복한가
달라이라마
하워드 커틀러 지음
류시화 옮김
문학의 숲 펴냄
1만5천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는 처음으로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는 망설임 없이 “물론입니다.”라고 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가질 수 없는 평화로움과 진실이 담겨 있었다.

‘행복에 대한 교과서’로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서 달라이 라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누구나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10년, 세상은 경제 불황, 국제적 분쟁과 소규모의 전쟁,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편견, 의심, 무관심, 인종차별, 갈등, 폭력, 잔인성으로 인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해 하워드 커틀러가 행복한 달라이 라마에게 묻는다.

인간은 왜 혼자서 살 수 없는가?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언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가? 우리는 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가? 인간이 폭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가? 궁극적으로, 너무도 불행한 장소로 느껴지는 지금의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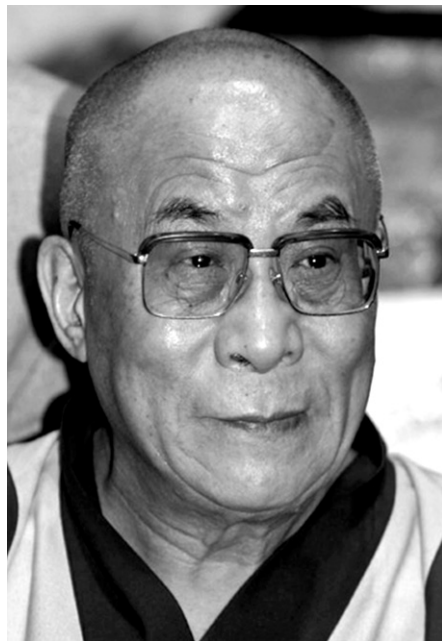
커틀러는 달라이 라마와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아침,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라는 개념에 대해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고립감과 소외감이 널리 퍼져 있고, 분리된 느낌과 심지어 불신감이 지배적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에 대꾸한다. “만일 지금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에 착륙한다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로 뭉칠 겁니다! 모두가 단결해 ‘우리는 지구인!’ 하고 말할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나는 행복에 대한 특별한 토론에서 달라이 라마는 ‘혼자 행복해도 되는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다른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나의 행복은 타인에게 달려 있다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행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달라이 라마는 삶의 핵심은 행복하게 사



Q : 혼자 행복해도 되는걸까?

A : 행복은 공존해야 큰 의미

Q : 왜 ‘자기’에서 ‘우리’로 관점 변화해야 하나

A : 공동체 의식 결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혹은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달라이 라마는 관점을 ‘자기’에서 ‘우리’로 바꾸라고 제안한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사랑을 함께 나눌 인간 동료나 친구들이 없다면 고작 애완동물과 정을 나누는 신세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두 전문가인 우리가 고독을 느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이 고독감이 현대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들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온갖 문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진리를 제시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활랑한 무인도에 좌초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인간 존재와 마주치게 된다면, 당신은 곧장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낄 것입니다. 설령 그가 당신과 아주 다르고 완전히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때 인간 존재로서의 공동의 유대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문제들과 별개로 각자가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은 사회적인 것과 맞물려 있기에 가난, 불평등, 편견, 정치적 억압 같은 조건들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와 커틀러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이 이분법적 구분을 깨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행복은 어느 한쪽이나 어느 한 가지 상황이나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한가)는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책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com

나와 이웃 위해 기도하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제시 번뇌, 악업 녹이고 선업 키워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운명 탓, 팔자 탓을 하지만, 실제로 이 모두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안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없다”는 것. 따라서 번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아무리 정해진 운명이라고 바꿀 수 있다. 번뇌란 탐내고 이리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모여 뭉친 것으로, 이러한 번뇌가 모여 업이 되어 운명을 나쁜 쪽으로 이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현재, 혹은 미래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지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기도와 선업을 통해 과거의 업을 녹이고 현재의 운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 책에서 법안스님은 기도만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뿌’를 이용해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것을 구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악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업장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선업이 쌓이면서 인연법에 따라 마침내 운명의 물결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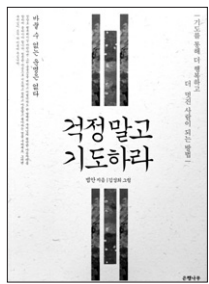
실제로 법안스님 자신도 7년간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우연히 약사 기도를 접하고 수십 년간 확산과 믿음과 정성으로 정진한 결과, 마침내

자신의 병마도 극복하고 중생의 병도 고치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신유(神癒) 능력을 얻게 되었다. 책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치병을 고친 스님의 신기한 일화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과 부귀와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祈福)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욕심이 나쁠 뿐이다. 특히 스님이 강조하는 ‘복’이란 ‘좋은 인연’을 의미한다. 좋은 인연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복을 소중히 여겨 잘 빌고, 잘 아끼고 잘 나누면 세상이 맑아지고 좋아질 현실에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나와 이웃, 세상을 위해 좋은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언뜻 상투적이고 투박한 듯 보이지만 고된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은 울림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참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준다. 반드시 불자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현실에서 얻는 고통스런 마음은 사라지고, 따뜻한 위로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책장을 덮고 난 후에도 어깨를 다독이는 스님의 격려가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불보살님들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감동시키도록 하세요.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격정말고 기도하라! 법안 스님 | 은행나무 펴냄 | 1만4천원 | 김주일 기자



불교초심자 위한 화엄경 해설서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도서출판 민족사에서는 왕초보시리즈 중 한 권인 <왕초보 화엄경 박사 되다>를 펴냈다. <화엄경>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대승불교사상의 핵심인 반야와 유식사상을 밀가름으로 하여 여러장사상이 싹트고, 이를 근본으로 화엄의 우주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화

엄은 훗날 중국선사상을 형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완성판이자, 고대국가의 지도 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또한 <화엄경>은 사상사적으로 중국 대륙과 우리나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동양사상의 강력한 조류를 형성했다. <화엄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엄불교의 가르침은 기존의 노장사상과 그 밖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원만하게 회통시켜서, 동양인 특유의 관용적인 심성을 함양시켜왔다.

이 책은 방대한 화엄경의 세계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어 가장 쉽게 <화엄경>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화엄경>에서

는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지 않고 보살들이 삼매에 들어 있다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받아서 대신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보살들이 법을 설한다. 기존의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하는데, 그와 비교한다면 독특한 구성이다. 이 책은 불교를 조금도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화엄경 안내 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쉬운 말투(구어체)로 쓰고자 했다. 그것이 초보 불자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불교용어, 불교 책을 딱딱한 개론서나 사전처럼 쓴다면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읽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왕초보 화엄경 박사되다! 정병조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1천원
김주일 기자

비공개된 42개 문화유산 이야기



무심히 지나치던 우리 문화유산에 작은 의문을 던지는데 출발한다.

문화재전문기자 출신의 저자는 이런 사소한 의문을 발전시켜 미술사에 국한되지 않은 역사 종교 민속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42편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펼쳐놓는다.

저자는 정림사가 물리적인 사비성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백제 왕실과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했던 상징공간이라는 점에서, 소정방의 낙서는 승리에 도취한 자의 기고만장함의 결과가 아니라 정밀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연장선상에서 통일신라시대 정림사탑을 닮은 석탑을 세우는 것은 백제계 주민을 자극하던 만큼 백제계 석탑의 건립은 철저하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다. 후삼국시대 이후 옛 백제지역에서 정림사탑을 닮은 탑이 줄이어 세워진 것도 백제추종세력의 백제 문화에 대한 향수의 발로였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석굴암 금강역사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계의 연구가 상당 부분 이

루어졌다.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파손되었거나, 석굴암을 중건하면서 옛 금강역사를 폐기했다거나, 원래 두 쌍의 금강역사를 조성했다거나, 완성품을 만들려했으나 실패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있는 인도의 고승 지공의 부도에서 대어행가로서 그의 면모를 부각시키고(14세기 인도의 대어행가 지공의 회암사 부도), 예산 향천사에서 주인공인 고승의 얼굴이 새겨진 부도(향천사 부도에 새겨진 멸운대사의 얼굴)를 살펴보고, 무오사화의 주역인 탁영 김일손이 남긴 거문고인 탁영금(무오사화의 역사 간직된 탁영금)에서 역사를 더듬기도 한다.

오래된 지금 | 서동철 지음 | 생각처럼 펴냄 |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승기건강비법 [마·가·목] 신비의 나무"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를 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를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라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영남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함안교육원>

- 입교일시 :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사)
- 문의전화 : (055) 58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사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 불음원장 원명 합장

공 고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한다.
불기 2556(2012)년 4월 12일 날짜로 (사)한국불교정토종 중앙총회회 중헌 제39조 6항 중법 제11조 1.2항에 의거 중앙총회를 해산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제적 및 증권정지

사망 : 태 원 사	사망 : 관 음 사	사망 : 석 경 사
직위 : 총무부장	직위 : 강원교구장	직위 : 없 음
법명 : 설 진	법명 : 혜 명	법명 : 설 현

상기 스님들은 (사)한국불교정토종 중헌 중법을 유린하고 전체 중도들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중헌 제92조 4항 총무원법 제11조 2항 중무직원법 제14조 2항에 의거 제적 및 증권정지함을 공고함.

(사)한국불교정토종(이사장 지산스님)은 정토종 중헌 중법상 아무 권한도 없고 총무원장 무각에게 승려의 법계도 준 사실이 없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총무원장을 체탈도첩할 수 있는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행동을 아니하면 귀하를 신문광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
위 사실은 내용증명으로 대신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